

일자리아 열려라!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3월 19~20일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려,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 채용박람회kt)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 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 마감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제1차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

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막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을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 가운데 ‘기업채용관’에는 8개 분야(중소벤처기업, 월드클래스 중견기업, 콘텐츠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취업, 정보통신기술(CT)기업, 바이오헬스관, 청년친화·일자리오피스기업)의 115개 우수기업이 채용계획 아래 인사담당자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25년 채용계획 등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 SK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쉐각카 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 등을 청년 구직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했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했다. 또 ‘청년On 라운지’에서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NEW 테크존’에는 증강현실(AR),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HMD) 활용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했다.

정부 관계자는 “3월 28일까지 현장박람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두호 기자

교육부, 미래 융합인재 양성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그간 본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은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공 자율선택제 등 학습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했고, 국립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도 개선되었다. 전문대학은 신기술 분야 및 지역 특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

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지원 배분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올해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전면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RISE) 사업, 특수목적사업(불입2참고)’으로 크게 3가지로 통합·분류했다. 이에 따라 라이즈(RISE)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입법 및 정책과제 제시 촉구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제40대 교총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바비엔2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회장은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히면서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기치로 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하늘이법, 교실 CCTV 설



치 및 몰래 녹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원 5법에 이은 보완 입법도 요구했다.

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 행정업무 분리,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정치기부금 확대 등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재 현장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무결점, 무한 책임만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교육활동의 위축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노심조사 걱정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정민준 기자

INDEX

- | | |
|----------------------------------|-------|
| ▶ 1면 교육정책 | ▶ 1면 |
| ▶ 2면 전국종합 | ▶ 2면 |
| ▶ 3면 전국종합 | ▶ 3면 |
| ▶ 4면 전국교육 | ▶ 4면 |
| ▶ 5면 전국종합 | ▶ 5면 |
| ▶ 6면 전국교육 | ▶ 6면 |
| ▶ 7면 전국교육 | ▶ 7면 |
| ▶ 8면 전국종합 | ▶ 8면 |
| ▶ 9면 전국종합 | ▶ 9면 |
| ▶ 10면 오피니언 | ▶ 10면 |
| ▶ 11면 오피니언 | ▶ 11면 |
| ▶ 12면 전면광고 (제16회 2층1호 전국백일장 공모전) | ▶ 12면 |
- 교육타임즈

JUNG KWAN JANG

새해 건강은 정관장으로

✓기업선물 전문매장 ✓정관장제품 할인 행사
(일부품목 제외)

✓전국 택배발송 041-663-0304

정관장 읍내점(기업은행 옆)

검색